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지앤아이솔루션 열차단 코팅제 ‘썬 실드’

# “페인트처럼 바르는 단열재 … 뽁뽁이보다 시공 간편”

(단열 에어캡)

지난해 여름 이영순 지앤아이솔루션 대표는 사장실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전면 통유리를 통해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었던 사장실이 여름이 되자 ‘썬 샤우나’로 탈바꿈했다. 통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강한 햇빛 때문이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햇빛 차단용 페인트를 바르자 온도가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아침만 되면 사장실에서 페인트 냄새가 독하게 났다. 밤새 환기가 되지 않아서였다.

◆“자외선 99% 차단” 지앤아이솔루션이 내놓은 ‘썬 실드 화이트’는 이 대표의 이런 경험이 녹아든 열차단 코팅제다. 페인트칠하듯 유리창에 바르면 20분 만에 마른다. 시트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깔끔하다. 자외선은 99%, 근적외선은 92%까지 차단해 실내로 유입되는 햇빛 양을 줄여준다. 수성 제품이라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지앤아이솔루션은 지난 8월 말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박람회 등에서 제품을 공개했다. 실내 온도를 5~6도 정도 낮춰주기 때문에 여름철 가정 냉방비를 30%가량 절감해주는 제품력이 주목을 받았다. 한 여름이 지났는데도 관람객 상당수가 즉석에서 구매했다.



이영순 지앤아이솔루션 대표가 열차단 코팅제 ‘썬 실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 발열·단열 소재 적용

### 실내 난방효과 뛰어나

### 열차단 등 여름용도 출시

이 대표는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 한두 달 만 더 빨리 출시했다더라”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차별화된 성능을 장점으로 꼽았다. 근적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카메라 적

외선 차단 필터에 쓰이는 고가의 화학물질을 썼다. 어두운 곳에서 인물사진을 찍을 때 눈동자가 빨개지는 ‘적안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된 특수 물질이다.

### ◆찬 공기 막는 단열 기능도

지난달에는 겨울용 제품인 ‘썬 실드 에어’도 출시했다. 바깥의 찬 기운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에 붙이는 단열 에어캡(일명 뽁뽁이)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다. 페인트를 바르듯 제품을 유리창에 바르면 0.01mm 크기의 기포가 무수

히 많이 생겨 에어캡 속에 든 공기층 역할을 해준다. 이 대표는 “유리창 두께를 3mm 이상 두껍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낸다”며 “발열소재와 단열소재가 함께 작용해 난방열이 실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 ◆시공·제거 모두 편리

썬 실드 여름 제품과 겨울 제품 모두 시공과 제거가 간편하다. 여름철 햇빛 차단을 위해 붙이는 시트지는 구겨짐 없이 부착하기가 어렵고, 접착제가 남아 깔끔하게 제거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일(a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김도무 선방수욕실청소기(031)457-3107 △루미르-쉴볼로 작동하는 LED램프(02)6959-8224 △헤즈테크 놀로지-주사바늘 자동제거 분리배출기(042)487-7962 △지앤아이솔루션-썬 실드 에어(02)2624-3025

하기도 어렵다. 반면 썬 실드는 롤러로 바르기만 하면 시공이 간편하다.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 녹아내려 제거하기도 쉽다. 이 대표는 “창문이 많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공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다.

썬 실드는 지마켓, 이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 중이다. 지앤아이솔루션은 자동차 엔진오일 상태, 튀김기름 오염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산도(pH) 측정기도 개발 중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중국서 커피 수요 급격히 확대 한국산 즉석커피 시장 열릴 것”

### 중소인 한마디 임준서 씨즈커피코리아 사장

임준서 씨즈커피코리아 사장(74·사진)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70대 중반인데도 의욕적으로 경기용인 본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커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연면적 1650㎡ 규모의 기존 공장 옆에 더 큰 공장을 신축 중이다. 신축 건물 2개 동의 연면적은 2100㎡에 이른다.

이달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인 이 시설은 기존 즉석커피 생산시설에 견줄시설과 체험시설을 가미한 ‘복합커피단지’다. 인근 에버랜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계를 위한 것이다.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중국 관광객이다. 임 사장은 “중국인은 수천년간 차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커피를 즐기게 됐다”며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커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

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이런 구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커피와 관련된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커피도 맛볼 수 있고 직접 커피를 제조할 수도 있다.

그는 남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인 54세에 창업해 20년 넘게 커피 제조회사를 운영 중이다. 창업 후 10여년 동안 국내 편의점에 컵커피 등 즉석커피를 납품했다. 주고객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이었다. 그 뒤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다가 3년 전부터 온·오프라인망을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박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참석해 중국 바이어를 만난 게 중국 시장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임 사장은 “사업할 때는 도전정신과 더불어 고정관념을 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젊은이들이 점심 식사 뒤 커피점 앞에서 줄을 서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가는 것은 중국이 머지않아 커피수요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남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중소 R&D에 내년 9517억 지원

### 중기청 예산안 확정

내년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에 정부 예산 9517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017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을 9일 공고했다. ‘기업성장 촉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두 개의 큰 주제로 21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내년 R&D 지원금은 올해 대비 0.9% 증가했다.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기술 개발(65억원), 제품서비스 기술개발(58억원) 등의 사업이 신설됐다.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과제만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실질적 성과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역량을 평가할 때 수출 실적이 있거나 해외안 된다. 세계 시장에서 판매가 될 가

능성이 큰지,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지 등도 고려된다. 고용 성과 평가에선 R&D 성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신정희수제안도 완화했다. 기존 연 1~2회 신청에서 2~4회로 늘리고 수시 신청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R&D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같은 사업에 대한 연간 과제신청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동시수행 과제를 2개로 제한하는 총량제 적용 예외사업도 기존 2개에서 6개로 증가했다. 사업계획서는 작성 항목을 줄이고 작성 분량도 5~10쪽으로 한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광기자 ahnj@hankyung.com

## 삼성바이오에피스 “허가도 속도전” … 호주서 렌플렉시스 1년만에 승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 경쟁사보다 5개월 단축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성과를 내놓은 데 이어 각국 정부의 허가 절차에서도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통상 1년 반 이상 걸리는 기간을 4~5개월가량 단축하고 있어서다. 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사진)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가 지난달 말 호주 식약청(TGA)에서



레미케이드를 본떠 만든 약이다.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9조원가량 팔린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호주에서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오시밀러를 내놓게 됐다. 현지 판매는 다국적 제약사 머크사프앤드(MSD)

### 제품 늘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명	원소의약품	판매 현황
브렌시스	엔브렐	유럽, 한국, 호주, 캐나다 승인
렌플렉시스	레미케이드	유럽, 한국, 호주 승인, 미국 신청
SB5	휴미라	유럽, 한국 신청
SB3	허셉틴	유럽, 한국 신청
SB8	아바스틴	임상시험 3상 중
SB9	란투스	유럽, 미국 신청

자료:삼성바이오에피스

이 담당한다. 이미 진출한 셀트리온의 램시마와 경쟁을 펼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호주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연 5000억원 규모”라며 “호주 정부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사용

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는 신청 1년1개월 만에 승인이 됐다. 현재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출시한 브렌시스와 렌플렉시스는 한국, 유럽, 호주 등에서 허가를 신청한 지 1년 1~2개월 사이에 판매 허가를 받았다. 경쟁업체가 1년 반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각국 규제당국에 판매승인 신청과 동시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일종의 ‘모범답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다. 통상 질문이나 자료 요청이 들어온 뒤 이를 준비하는 다

른 제약사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다. 고 사장은 “제품 허가 경험이 많아지면서 각국 규제기관이 원하는 내용을 예상하는 노하우도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을 할 때도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전적으로 업무를 맡기는 대신 각국에 관리 인력을 파견해 환자 모집 등을 직접 챙기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초창기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허가 규제를 전담하는 인력을 꾸준히 확충했다. 현재 허가·규제 담당 직원만 40여명으로 국내 단일 제약사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조미원기자 mwise@hankyung.com

대한민국 대표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HJ Realty Asset Corporation**

핵심부동산중개업인 방향을 빌딩중개업

**강남 최강 ★ 빌딩 중개 방창운 팀 ★ 부동산 특급매물**

100% 성공확률

**독보적인 입지의 ★ 고수익 ★ 빌딩**

환승역 더블역세권 역출구 코너

대지 + 건물 면적 = 1,476평

일반 상업 지역

광대로변 코너 자리

저하점 더블역세권 환승역 출구 앞

주변 지역 개발 계획 확정부 개발 진행중

최저 수익률 9% 이상(취귀매물)

미래 투자 가치 최고의 물건

**최저수익률 9% 이상**

**고수익 빌딩급매가 240**

**역세권 대치동 상가주택**

대지 + 건물 면적 = 270평

점근성, 권력 상대 최상

현재 공실 無

인근 역차 상권 / 다양한 개발 호재

보증금 2억5천만 / 임대료 1100만

**가격대비 최고 37**

**역삼역 상가주택**

대지 + 건물 면적 = 250평

지역별 도보 5분 거리

공실 無 / 복층형 주택

대물 20억 가능 / 월세 수입 최고

보증금 2억 / 임대료 1200만

**희귀 매물 40**

**논현동 초역세권 근생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660평

역출구 2분 거리

건물 내역만 최고

공실 無 / 점근성 최고

보증금 9억 / 임대료 3200만

**투자가치 최고 110**

**초역세권 대치동 신축 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280평

역출구 2분 거리

최고의 월세 수익 6.7%

연정적 임대 수요

꽤곳한 내역권 / 임대료 65억

**최고 임대수익률 6.7%**

**★ 현금가 ★ 23**

**강남역 초역세권 최저가격 급매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540평

강남역 도보 1분 거리

공실 無

인근 평균 토지 평당가 8천 ~1억원

현 매물 토지 평당가 5,837만원 시세 이하

시세보다 월등히 경쟁력 있는 가격과 입지

전국 유일의 24시간 상권 / 유동인구 다

**희귀급매물 시세이하**

**수익률 5.15% 현금가 56**

**역삼동 초역세권 수익형 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1420평

일반 상업지역

신축급 빌딩으로 내역권 평균

최고의 위치 / 전중 공실 無

**안정된 수익률 5.7%**

**220**

**논현동 초역세권 오피스 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790평

역세권 1분!!

점근성 뛰어나고 건물상태 최고

신분당선 연장 개발 호재

보증금 6억 1천만 / 임대료 4900만

**최고임대수익률 6%대 120**

**역삼동 초역세권 신축부지**

대지 + 건물 면적 = 200평

지역별 도보 2분 거리

심거리 코너에 위치

기성성, 점근성 최고

임거인 명도 완료

**신축 부지 34.5**

**논현동 최고 수익형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800평

역출구 5분 거리

전중 공실 無

위역 - 신사선 개발 호재

점근성 Good

**★ 수익률 6.3% ★ 90**

**초역세권 강남 올근생 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2500평

일반 상업 지역

신축급 권력 상대 최고

공실 無

향후 투자가치 최고

**★ 수익률 6%대 ★ 400**

**초역세권 강남 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5000평

일반 상업지역/우량 임차인 입점

신축급 권력 상대 최고

공실 無, 향후 투자가치 최고

**★ 수익률 7%대 ★ 750**

**청담동 핫플레이스 근생 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510평

수익 및 사육용

건물 내역만 최고

1군 프랜차이즈 입점!!

**★누구나 탐내는 자리 ★ 140**

**초역세권 역삼동 사육 빌딩**

대지 + 건물 면적 = 380평

일반 상업지역

지역별 도보 1분

기성성, 점근성 최고

빠른 명도 가능

**초역세권 사육 110**

- 강남구 / 서초구 빌딩 약 5만건 이상 DB(데이터베이스)를 철저하게 분석 / 연구하여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현장 확인한 매물만을 소개합니다.
- 최고의 입지와 수익률을 자랑하는 100% 현금 확인 매물입니다. 허위 매물로 인해 고객님의 귀는 말할수 없는 불편을 완벽히 제거 하였습니다.
- 저희는 윈-윈 시스템 도입하여 중개, 임대관리, 세무, 법률에 이르기까지 한번에 고객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2) 6006-0016**

**이사 방창운 02) 6006-0044**